

2022~2027 프랑스 안정화프로그램  
(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 10.

본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2022.7.29)한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보고서를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연구진

-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이정인 선임연구원

프랑스 정부는 2022년 7월 29일 2022~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 (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을 발표<sup>1)</sup>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은 2022~2027년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재정전략 및 주요 과제를 다룸

재정안정화 노력을 통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1. 경제전망

■ (2022년 전망)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1년 6.8%로 강하게 반등한 후 2022년 2.5%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였고, 2분기 가계 소비 회복과 국제 관광의 확대로 경제 활동이 다소 회복

- 정부의 구매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치가 가계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점진적으로 공급망 부문 긴장이 완화되며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2022년 인플레이션은 5.0%로 전망되며,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조치가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

■ (중기전망)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를 기록한 이후 2024~2027년 사이 1.6%~1.8%로 높아질 전망

○ 2023년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측면의 문제로 회복이 다소 둔화될 전망

-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회복 전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구매력 지원 조치 지속 필요

1)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2022.7.29.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2/programme\\_stabilite/PSTAB%202022.pdf](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2/programme_stabilite/PSTAB%202022.pdf)

○ 이후 France 2030 계획<sup>2)</sup>,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sup>3)</sup> 감면 등의 정부 조치와 공급 부문 긴장의 완화 등으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23~2027년 연금 부문 개혁과 직업 훈련 강화 등 구직자 지원 개선 노력을 기울여 2027년 완전고용을 달성할 전망

<표 1> 2020~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6.8	2.5	1.4	1.6	1.7	1.7	1.8
가계소비	5.2	2.8	1.9	1.8	1.9	1.8	1.9
일반정부소비	6.4	1.4	0.5	0.4	0.3	0.8	1.0
수입	7.8	6.5	3.0	3.5	3.5	3.1	3.4
수출	8.6	7.1	3.5	4.1	4.1	4.1	4.2
총고정자본형성	11.4	2.0	2.0	1.9	1.9	1.9	2.0
GDP디플레이터	1.3	2.3	3.2	1.7	1.6	1.6	1.6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p.12 Table. 1발췌

■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은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및 석유 공급 중단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 회복을 제한할 수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에너지, 자동차, 항공 및 우주 부문 등 미래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총 30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1 참고

3) 기업부가가치금(연간 매출액 이 €500,000 달성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2021 참고

## 2. 재정전망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강력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하면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재정지출을 통제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강력한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며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8.9%, 2021년 6.4%를 기록

- 2020년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는 낮은 경제성장률(-7.8%)과 강력한 지원조치를 반영
- 2021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
  -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급 지원조치와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계획의 조치로 GDP 대비 재정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제 회복으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0%로 개선될 전망

-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구매력을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20년 60.6%, 2021년 58.4%에서 2022년 57.3%로 점차 낮아질 전망

○ 모든 정부 부문의 공공지출 증가를 통제하여 2023~2027년 재정이 안정화될 전망

-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이하로 낮아지고, 2026년부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하락할 전망
-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통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필수 부문에 대한 투자 지속 필요

■ 2020년 114.6%까지 상승했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26년 이후 안정화될 전망

○ 경제회복으로 인해 2021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112.5%를 기록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공공채무 비율은 계속 하락할 전망

- 중기적으로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25년까지 다소 상승한 후 2026년부터는 안정화되고 하락하기 시작할 전망

<표 2>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3.1	-8.9	-6.4	-5.0	-5.0	-4.6	-4.0	-3.4	-2.9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	53.8	60.6	58.4	57.3	55.5	55.2	54.7	54.1	53.5
재정지출 증가율	2.8	6.8	4.3	3.0	1.4	2.8	2.5	2.1	2.4
총조세부담률	43.8	44.4	44.3	44.8	43.5	43.8	44.0	44.0	44.0
GDP대비 공공채무	97.4	114.6	112.5	111.9	111.7	112.8	113.3	113.2	112.5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p.17  
Table. 2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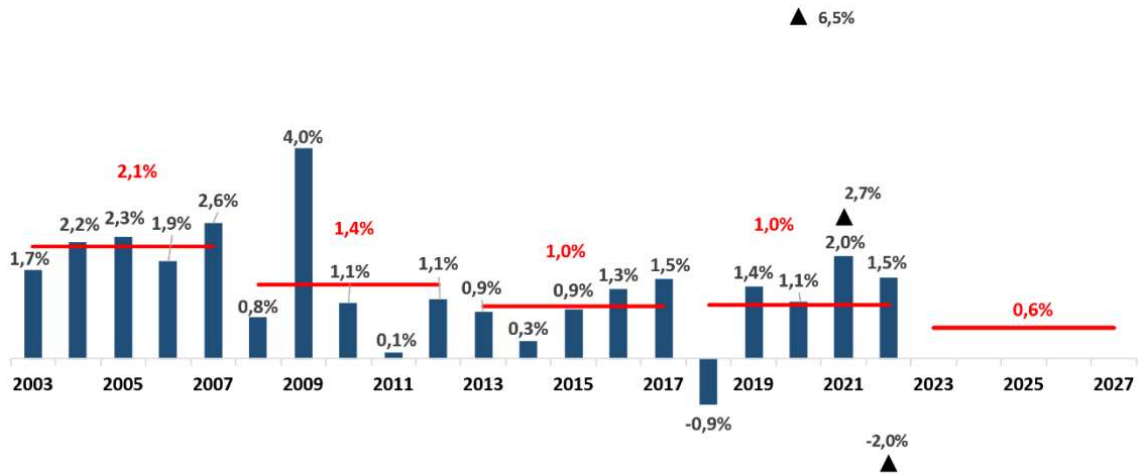
### 3. 재정전략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빠르고 강력하게 재정을 지원
  - 비상 지원조치의 시행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3.1%에서 2020년 8.9%로 급격히 악화
  - 2021년 코로나19 위기 지속에도 강력한 경제회복세를 보였고, 프랑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원조치를 유지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구매력 보호 조치 시행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에너지 가격 상승 제한 조치와 더불어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주택세 감면 등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 지원

-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 확대와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sup>4)</sup> 인하를 통한 기업지원 지속
- 직접적 의료지출 비용을 제외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조치는 점진적 폐지
- 2023~2027년 재정수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 이하로 낮아지도록 함
  - 2027년 재정수지 3%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2022~2027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0.6% 이하로 제한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부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범위에서 지출 증가 억제 노력 필요
  -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26년부터 GDP 대비 공공채무가 하락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27년 53.5%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53.8%보다 낮아질 전망
  - 재정의 정상화는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이뤄질 필요
    -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및 프랑스 2030(France 2030) 계획에 대한 지출을 지속하여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화
  - 실업보험 및 연금 개혁, 구직자 지원 및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4) 기업부가가치금(연간 매출액 이 €500,000 달성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그림 1] 재정지출 증가율



주: 막대그래프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이 제외된 수치이고, ▲는 포함된 수치이며, 실선은 5개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의미함. 2022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 p.32

<표 3> 프랑스 정부 부문별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Solde public au sens de Maastricht)	-8.9	-6.4	-5.0	-5.0	-4.6	-4.0	-3.4	-2.9
중앙정부 (État)	-7.8	-5.7	-5.7	-5.4	-5.1	-4.9	-4.7	-4.6
중앙행정기관 (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s centrales)	1.0	0.0	0.2	-0.2	-0.1	-0.1	-0.1	-0.1
지방공공행정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1	0.0	-0.1	-0.1	0.0	0.0	0.3	0.5
사회보장행정 (Administrations publiques de sécurité sociale)	-2.0	-0.7	0.6	0.6	0.7	1.0	1.2	1.3

자료: 프랑스 정부,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2022-2027(programme de stabilité 2022-2027)」, p.29 Table. 5

#### 4.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난 10년간 고령인구의 고용률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연금 부문 개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처 능력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나은 상황
  -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 비중은 2020년에서 2070년 사이 0.8%p 감소할 전망으로, 특히 연금지출이 감소할 전망
  - 2010년과 2014년의 연금개혁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연금 부문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개선
  - 다만 연금자문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COR)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및 중기 재무 전망이 악화

#### 5. 주요 과제

-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프랑스가 직면한 주요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가계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 조치 시행
  - 실업률을 낮추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미숙련 노동자 및 청년에 대한 고용 훈련 지원
  - 성별 불평등과 지역 간 불평등 해결을 위해 노력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 지속
  - 국제 무역이 급격히 둔화된 상황에서 항공, 자동차, 관광 등 프랑스 주요 수출 부문 회복 지원
  - 프랑스 경제의 현대화, 디지털화, 재산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6. 최고재정자문위원회 평가<sup>5)</sup>

-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2022년 2.5%, 2023년 1.4%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고 평가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예상보다 더 큰 폭 인상, 이탈리아 재정 긴장 고조, 유럽연합 내 가스공급에 대한 불안감 확대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2년 5.0%, 2023년 3.2%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다소 낮게 설정되었다고 평가
- 안정화보고서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소 제한적이라 평가
  - 현재 다수의 EU 회원국이 2025년부터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개선 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해 프랑스는 2027년에 이르러서야 재정수지가 3% 이하를 기록할 전망
  - 2027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1년 수준인 112.5%로 회복할 계획이지만, 이는 다소 높게 설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공채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5)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X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ASSOCIÉES AU PROGRAMME DE STABILITÉ POUR LES ANNÉES 2022 À 2027, 2022.7.29.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3-programme-de-stabilite-2022-2027>